www.kihasa.re.kr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60호 (2026-01)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2. 9. ISSN 2092-7117

자녀 양육기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유형 변화 (2019/2024년)

최인선
인구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유형은 근로·가사·양육시간의 조합에 따라 근로중심형, 역할분담형, 근로-돌봄 조정형으로 구분됨.
- 2019년에 비해 2024년에는 역할분담형이 소폭 감소하고 근로-돌봄 조정형이 소폭 증가하여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유형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다만 근로중심형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유형 내 변화는 기존 맞벌이 가구 유형의 틀은 유지하되, 근로·가사·양육시간을 조금씩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남성은 일부 유형에서 양육시간이 증가하고, 여성 역시 일부 유형에서 근로와 양육시간이 증가하고 가사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양상이 2019년에 비해 2024년으로 올수록 성별 균형 유지와 일·가정 양립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정책의 누적 효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여전히 근로중심형이 다수로 나타남에 따라 시간 조정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돌봄 요구가 높은 집단일수록 근로-돌봄 조정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부부가 함께 근로와 돌봄의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줌. 향후에는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강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01. 맞벌이 가구 유형 변화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 우리나라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024년 현재 48.0%로 2019년(45.5%)에 비해 약 2.5%p 증가함(국가데이터처, 2025). 맞벌이 비율의 증가는 가구 내에서 성별에 따른 분업(specialization)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간 일과 돌봄 분담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을 의미함.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DOI: 10.23064/2026.2.460

- 특히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 투입이 필수적임. 맞벌이 가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일과 자녀돌봄,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므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시간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됨(Becker, 1965). 따라서 맞벌이 가구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의 시간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함.

◆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은 노동시장 여건, 돌봄 환경 등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조정됨.**

-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확산되었으며(Çoban, 2022; Maraziotis, 2024; 김기홍, 2024), 돌봄 영역에서도 시간제 보육 확대와 늘봄학교 시행 등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짐.

◆ **동일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근로 · 가사 · 양육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이 글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양상이 최근 5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함. 맞벌이 가구의 근로·가사·양육시간 배분 구조를 유형화하여 대표적인 유형을 도출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맞벌이 가구 집단 내의 이질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유형별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양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시간량) 원자료[1]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함[2].

◆ **맞벌이 가구의 유형화된 시간 배분 특성을 바탕으로 일 · 가정 양립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02. 자녀 양육기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양상 변화

◆ **2019년과 2024년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자녀 양육기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구조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기본적인 시간 배분 형태는 유지되면서도 각 영역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고 가사·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구조가 유지됨. 다만, 시간 배분의 세부적인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남성은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가사시간은 대체로 유지된 반면, 여성은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가사시간은 감소하였음. 양육시간은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양육시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2019년 40.3분 → 2024년 57.1분).

---

1) 생활시간조사는 5년 주기로 국민의 하루(24시간) 일과를 조사하여 생활양식과 사회 변화를 파악하는 통계조사임. 이 조사는 시계열 조사(time-series survey)로서, 연도별 결과는 시간적 선후 관계에 기반한 유형과 경향성을 보여 줌. 인과 관계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맞벌이 가구의 시간배분을 보기 위해 2019,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데이터의 평일(월, 화, 목)자료를 사용함. 분석대상은 10세 미만 자녀를 돌보고, 동일가구에 거주한 맞벌이 부부임(휴직자 제외).

〈표 1〉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양상 변화(2019년/2024년)

(단위: 분)

구분	남성			여성		
	근로시간	가사시간	양육시간	근로시간	가사시간	양육시간
2019	574.2	27.3	40.3	423.5	123.8	125.5
2024	546.6	27.2	57.1	438.5	104.8	126.6

자료: "2019년/2024년 생활시간조사(시간량)"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유형은 근로 · 가사 · 양육시간의 조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됨.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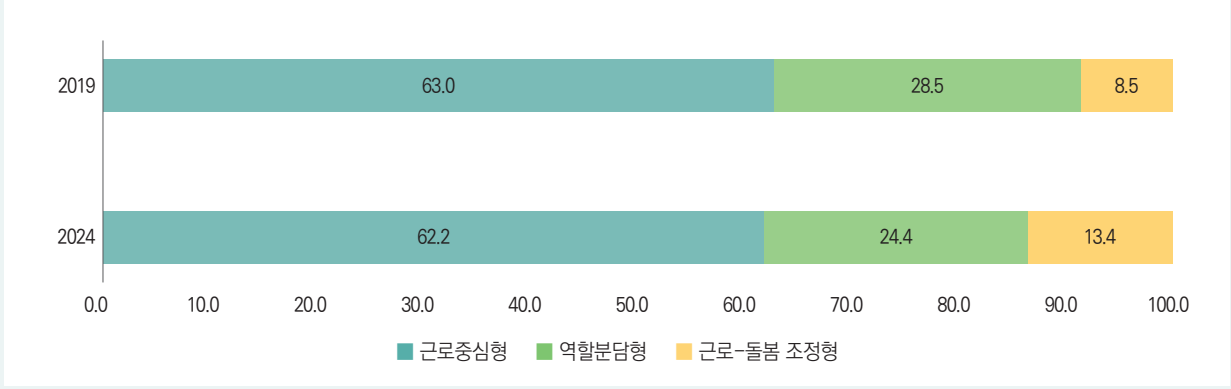
- 근로중심형 부부: 다른 집단에 비해 부부 모두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게 배분되어 있음. 여성의 가사·양육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임.
- 역할분담형 부부: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돌봄 중심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분업하는 구조를 가진 유형으로, 남성은 근로시간이 긴 반면, 여성은 비교적 근로시간이 짧고 긴 가사·양육시간 특성을 지님.
- 근로-돌봄 조정형 부부: 남녀 모두 근로와 가사·양육에 비교적 고루 시간을 배분하여 조정하는 유형임.

◆ 2019년과 2024년 모두 세 유형의 큰 틀은 유지되었으나, 유형별 세부 영역에서 비율이 다르게 나타남.

-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한 결과, 근로중심형의 비율 분포는 변화가 거의 없고, 역할분담형은 감소, 근로-돌봄 조정형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9년에는 근로중심형 63.0%, 역할분담형 28.5%, 근로-돌봄 조정형 8.5%로 나타남.
  - 2024년에는 근로중심형 62.2%, 역할분담형 24.4%, 근로-돌봄 조정형 13.4%로 나타남.

[그림 1] 유형별 맞벌이 가구 변화(2019년/2024년)

(단위: %)



자료: "2019년/2024년 생활시간조사(시간량)"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 근로중심형: 장시간 근로 구조가 공고화됨.

- 2019년 기준 근로중심형에서는 남성의 근로시간이 597.4분, 여성의 근로시간이 494.7분으로, 부부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하는 양상을 보임. 가사·양육시간은 남성이 각각 17.9분, 37.0분, 여성이 94.6분, 100.0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사·양육시간이 길었음.
- 2024년 기준 근로시간은 남성이 583.9분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여성은 499.3분으로 소폭 증가함. 가사·양육시간은 남녀 모두 증가하여 남성은 가사 21.7분, 양육 37.3분, 여성은 가사 82.8분, 양육 103.5분으로 나타남.
- 근로중심형은 부부의 장시간 근로를 기반으로 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 양육시간이 증가함.

◆ 역할분담형: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분업이 지속됨.

- 2019년 기준 근로시간은 남성 551.8분, 여성 241.1분으로 큰 격차를 보임. 여성의 가사·양육시간은 각각 196.3분, 195.9분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각각 14.7분, 33.5분으로 낮은 수준임.
- 2024년 기준 남성의 근로시간은 515.1분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근로시간은 240.6분으로 유지됨. 남성은 가사·양육시간이 각각 26.0분, 41.0분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가사시간이 183.3분으로 감소하고 양육시간이 197.2분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 남성의 가사·양육시간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남성은 일, 여성은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분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유지됨. 기존 구조 내에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며 변화함.

◆ 근로-돌봄 조정형: 근로와 돌봄을 중심으로 시간이 조정됨.

- 2019년 기준 근로시간은 남성이 468.5분, 여성이 479.4분으로 근로중심형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음. 가사·양육시간은 남성이 각각 142.4분, 89.1분, 여성이 107.6분, 88.8분으로 비교적 균형적인 시간 배분 양상을 보임.
- 2024년 기준 남성은 근로시간이 417.0분으로 감소하고 가사시간도 57.5분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양육시간은 185.5분으로 크게 증가함. 여성은 근로시간이 490.8분으로 증가하고, 가사시간은 76.8분으로 감소, 양육시간은 115.0분으로 증가함.
- 근로-돌봄 조정형은 양육시간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근로와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한 시간 배분의 구성으로 볼 수 있음.

◆ 성별로 구분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의 방향성이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임.

- 남성은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여전히 하루 중 주된 시간을 일을 하며 보냄. 한편, 남성의 양육시간은 역할분담형, 근로-돌봄 조정형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근로-돌봄 조정형의 양육시간 증가 경향이 두드러짐.

- 여성은 근로중심형, 근로-돌봄 조정형에서 근로시간, 양육시간이 동시에 증가하고 가사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가사노동이 줄어들고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 줌.
- 전반적으로 관찰되는 변화는 성별 역할의 변화보다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한 시간 배분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맞벌이 가구는 제한된 시간 자원 안에서 일, 가사, 돌봄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구 유형에 따라 시간 배분의 방식을 다르게 조정하므로, 하나의 유형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표 2〉 유형별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양상 변화(2019년/2024년)

(단위: 분)

구분		남성			여성		
		근로시간	가사시간	양육시간	근로시간	가사시간	양육시간
근로중심형	2019	597.4	17.9	37.0	494.7	94.6	100.0
	2024	583.9	21.7	37.3	499.3	82.2	103.5
역할분담형	2019	551.8	14.7	33.5	241.3	196.3	195.9
	2024	515.1	26.0	41.0	240.6	183.3	197.2
근로-돌봄 조정형	2019	468.5	142.4	89.1	479.4	107.6	88.8
	2024	417.0	57.5	185.5	490.8	76.8	115.0

자료: "2019년/2024년 생활시간조사(시간량)"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03. 자녀 양육기 맞벌이 가구의 특성 변화

◆ 유형별 가구소득[3] 변화

- 2019년: 근로-돌봄 조정형은 상위 소득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
  - 근로-돌봄 조정형은 가구소득이 상위인 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전체의 47.1%가 상위 소득 구간에 속함.
  - 근로중심형은 상/중/하 소득 구간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특정 소득 계층에 집중되지 않음.
  - 역할분담형은 하위 소득 구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4년: 근로-돌봄 조정형의 소득 구성이 다변화됨.
  - 2019년과 비교할 때, 근로-돌봄 조정형에서 상위 소득 비율은 22.5%로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중위·하위 소득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근로중심형과 역할분담형의 가구소득 분포에서는 중위·상위 소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2019년에 비해 2024년에는 근로-돌봄 조정형이 특정 소득 계층에 집중되기보다 소득 수준이 다른 다양한 가구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함. 즉, 상위 소득 가구에서 주로 나타난 근로-돌봄 조정형이 점차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활용되는 보편적인 시간 배분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임.

3) 가구소득을 절대적인 금액 단위로 비교하는 방식은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 연도별 맞벌이 가구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3개 소득 계층(상/중/하)으로 재분류함.

유형별 개인소득[4] 변화

- 2019년: 남녀 모두 근로-돌봄 조정형의 상위 소득 집중 양상이 뚜렷함.
  - 남녀 모두 근로-돌봄 조정형의 상위 소득 비율이 각각 70.6%,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근로-돌봄 조정형은 부부의 역할 조정 여력과 안정적 소득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역할분담형은 남녀 모두 상위 소득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여성은 하위 소득 계층이 83.3%로 개인소득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드러남.
- 2024년: 유형별 개인소득 분포가 상이함.
  - 남성의 개인소득 계층에서는 근로중심형의 상위 소득 비율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개인소득 계층을 살펴보면 2019년, 2024년 모두 근로-돌봄 조정형의 상위 소득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지만, 중위소득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유형과 관계없이 남녀 모두 하위 소득 집단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특히 근로중심형 여성의 하위 소득 비율 감소가 두드러짐.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개인소득 계층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9년에 비해 2024년에는 소득 계층이 상향 이동하며 격차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그림 2] 유형별 맞벌이 가구의 소득 변화(2019년/2024년)

(단위: %)

자료: "2019년/2024년 생활시간조사(시간량)"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4) 개인소득 수준은 남성과 여성을 통합한 전체 소득 구간 분포를 기준으로 3개 소득 계층(상/중/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이러한 분포 기준을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성별 상대적 소득 위치를 비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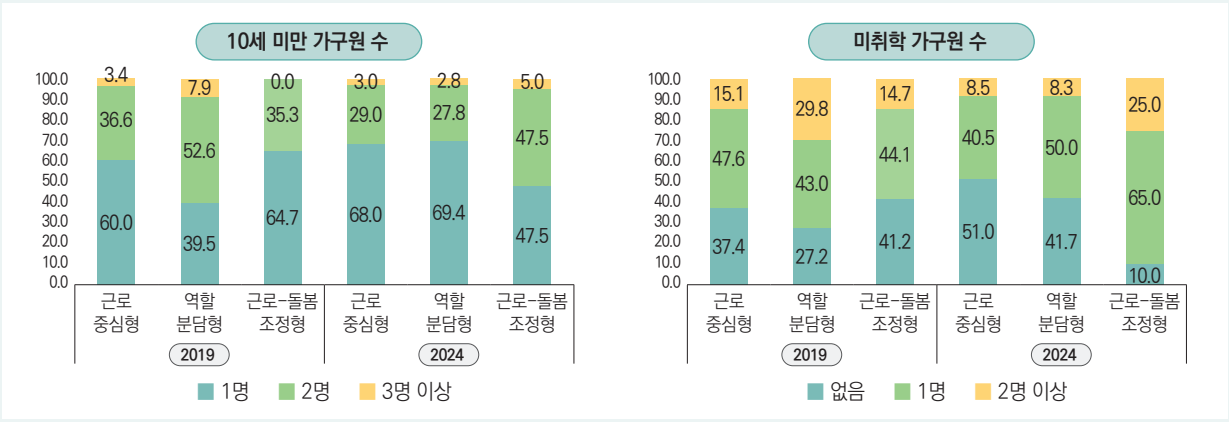
- 그럼에도 역할분담형에서 여성의 하위 소득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현상은 개인소득 기준에서도 성별 역할 분리가 완화되지 않았으며, 가구 단위의 시간·소득 조정이 일부 가구에서만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 줌.

유형별 돌봄 필요 가구의 구성 변화

- 2019년: 돌봄 수요가 높을수록 '역할분담형' 비율이 높음.
  - 10세 미만 가구원[5]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역할분담형임. 10세 미만 가구원 3명 이상은 7.9%, 2명은 52.6%임.
  -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 역시 역할분담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미취학 가구원 2명 이상 비율이 29.8%로 다른 유형에 비해 15%p 이상 높은 수준임.
- 2024년: 돌봄 수요가 높을수록 '근로-돌봄 조정형' 비율이 높음.
  - 10세 미만 가구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근로-돌봄 조정형임. 3명 이상 5.0%, 2명 이상 47.5%임.
  -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근로-돌봄 조정형이 약 90%로, 근로중심형과 역할분담형에 비해 약 30~40%p 차이가 남.
- 2019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많을수록 여성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양육시간을 확보하는 역할분담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고, 2024년에는 부부가 근로와 가사·양육시간을 조절하는 근로-돌봄 조정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확인됨.

[그림 3] 유형별 맞벌이 가구의 구성 변화(2019년/2024년)

(단위: %)



자료: "2019년/2024년 생활시간조사(시간량)"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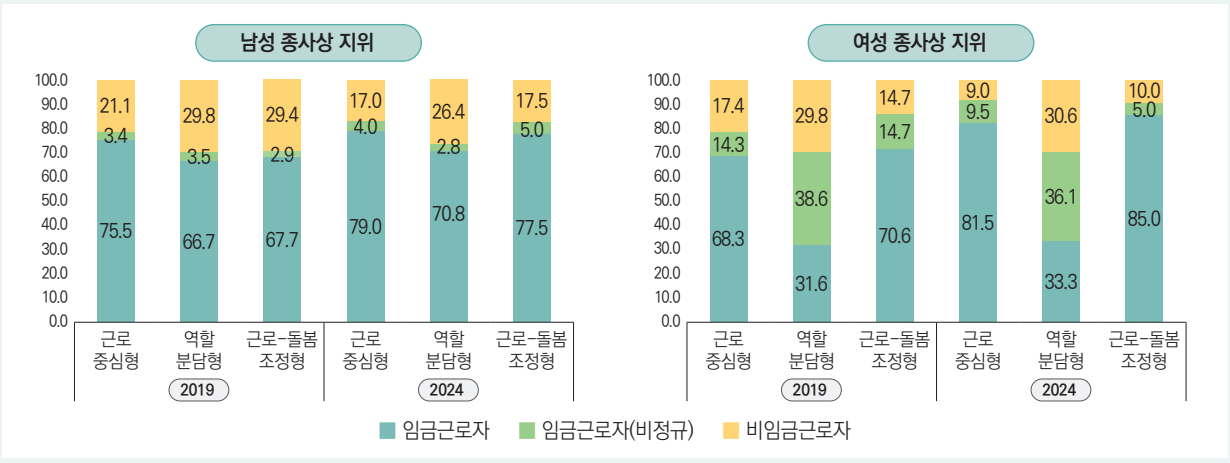
5)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여성에게는 제2의 경력단절이 발생할 정도로 초등 저학년 시기에 많은 돌봄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한정함(구슬이, 정익중, 2021; 조보배, 2022).

유형별 종사상 지위 변화

- 2019년: 역할분담형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성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유형은 역할분담형, 근로-돌봄 조정형임(약 30%).
  - 여성은 비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역할분담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역할분담형이 성별 분업과 불안정 고용이 결합된 유형임을 보여 줌.
  - 2019년에는 돌봄 수요가 높은 가구일수록 역할분담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이 비임금근로, 비정규 고용을 통해 돌봄에 대응하는 구조가 두드러짐.
- 2024년: 유형별 고용 구조가 분화됨.
  - 남성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역할분담형(26.4%)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반면, 근로-돌봄 조정형에서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줄고 임금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여성은 비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역할분담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역할분담형의 고용 취약성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에 비해 2024년에 근로-돌봄 조정형과 근로중심형에서 모두 남녀 임금근로자 비율이 증가함. 근로-돌봄 조정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금근로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역할분담형의 여성은 시점에 관계없이 불안정 노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양육시간을 길게 확보하는 형태를 보임.

[그림4] 유형별 맞벌이 가구의 종사상 지위 변화(2019년/2024년)

(단위: %)



자료: "2019년/2024년 생활시간조사(시간량)"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04.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유형은 근로 · 가사 · 양육시간의 조합에 따라 근로중심형, 역할분담형, 근로-돌봄 조정형으로 구분됨.**

-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역할분담형은 감소하고 근로-돌봄 조정형이 증가하여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유형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줌. 근로중심형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음. 근로-돌봄 조정형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으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역할이 크게 변하기보다는 유형별로 역할 내 시간 배분 방식을 재구성하는 방향의 변화가 관찰됨.**

- 남성은 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된 시간을 근로에 할애하고 있음. 양육시간 증가는 역할분담형과 근로-돌봄 조정형에서 나타남.
- 여성은 근로중심형, 근로-돌봄 조정형에서 근로시간과 양육시간이 동시에 증가하고 가사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구조로 변화함을 나타냄.

◆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 양상이 2019년에 비해 2024년으로 올수록 성별 균형 유지와 일 · 가정 양립 형태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근로 형태와 돌봄 지원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누적 효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형 간 격차와 시간 조정의 불균등이 여전히 존재함.

◆ **돌봄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조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19년과 2024년 모두 돌봄 수요가 있는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에도 근로중심형이 60% 이상을 차지함. 맞벌이 가구의 다수가 부부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경우, 대체 수단이 없으면 여성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역할분담형이 일정 비율로 유지되는 점 역시 자녀 양육 시기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난 시간 조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돌봄 요구가 높은 집단에서 유형 분포의 변화도 관찰됨.

- 10세 미만 가구원 수 및 미취학 가구원 수에 따른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돌봄 수요가 높을수록 역할분담형의 비율이 높았으나, 2024년에는 근로-돌봄 조정형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남. 이는 돌봄 필요성이 생길 때 한쪽 성에 치우친 역할분담을 하기보다 부부 모두가 근로와 돌봄의 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근로-돌봄 조정형에서는 남성의 가사 · 양육시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가 개인의 의지보다는 근로시간을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줌.

- 성평등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과 함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까지 포괄하는 보편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

참고문헌

구슬이, 정익중. (2021).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의 경력단절 영향요인. **여성연구, 108**(1), 281-308.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15~2024) 맞벌이 가구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B19_EQ%26tblId%3DDT_1ES4F01S%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 2025. 12. 2. 검색.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시간량) 원자료(2019, 2024).

김기홍. (2024). **유연근무제의 노동시장 이행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조보배. (2022).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12**(1), 121-146.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Çoban, S. (2022). Gender and telework: Work and family experiences of teleworking professional, middle-class, married women with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urkey.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29*, (1), 241-255. https://doi.org/10.1111/gwao.12684

Maraziotis, F. (2024). Flexibility for equality: Examining the impact of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on women's convergence in working hour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62*(2), 410-445. https://doi.org/10.1111/bjir.12787

집필 최인선 (인구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문의: 044-287-8367